SUKHAVATI

FC ANYANG MAGAZINE · 수카바티 — 2022 MAY Vol. 76

Harrington Place
PEARL ABYSS
LEADERS
성형외과병원 서울나우병원 병촌
V-EXX

ONE TEAM, 우리는 하나다

1

빠더너스 x FC안양 콜라보!

지난 22일(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FC안양과 서울이랜드FC와의 경기를 앞두고 빠더너스팀의 문상 기자가 시축자로 참여했다. 이날 문상 기자는 관중석을 향해 인사한 다음 코믹한 시축을 선보여 관중들에게 유쾌함을 안겼다.
FC안양과 빠더너스는 지난해 함께한 유튜브 콘텐츠를 계기로 올해부터 광고와 유니폼,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업하고 있다. 이 날 FC안양 선수단은 빠더너스의 로고가 담긴 특별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서기도 했다.

2

'우리 동네 공 좀 차는 축구인들의 친선 경기'

FC안양 지역밀착활동 '우리 동네 밀어내기 챌린지'가 지난 5월 22일(일) 오전부터 새롭게 시작됐다.
'우리 동네 밀어내기 챌린지'는 각 라운드마다 총 세 팀이 실력을 겨룬 뒤 라운드 우승 팀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2022 시즌에는 청년부 11개 팀, 장년부 11개 팀이 자웅을 겨룬다.

3

FC안양, 정민기-홍창범과 재계약 체결

FC안양이 GK 정민기, MF 홍창범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안양과 재계약을 체결한 정민기는 "승격이라는 목표 하나로 안양과 재계약을 했다. 우리 팀이 원하는 목표가 승격이고, 나도 우리 팀과 승격을 하는 걸 원했다. 팬들의 응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 팬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홍창범은 "FC안양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갈피를 못 잡던 내게 좋은 기회를 준 구단이다. 망설임 없이 구단의 재계약 제안을 받아들였고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FC안양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계속해서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4

FC안양 주현우, K리그 통산 200경기 달성

FC안양 주현우가 지난 4월 18일(월) 광주FC와의 경기를 통해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전 기록을 쌓았다. 지난 2015년 K리그에 데뷔한 주현우는 광주FC, 성남FC를 거쳐 2020년 FC안양에 합류했다.
특히 주현우는 2020년 7월 FC안양에 합류한 이래 지난 5월 22일(일) 경기(vs 서울이랜드FC)까지 K리그 72경기 연속 출전 기록을 쌓고 있다. 이는 K리그2 역대 3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서, 주현우가 필드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더욱 값진 기록이다.

안양은 제가 힘들 때 손 내밀어 준 팀, 재계약에 망설임 없었어요

VIOLET INTERVIEW

FC안양 홍창범이 재계약을 맺었다.
재계약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홍창범은 구단과 팬에 대한 애정을 계속해서 드러냈다.
안양에서 2년 차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팬들의 '간절한 열망'도 엿볼 수 있었다.
홍창범은 지난 시즌 안양의 유니폼을 입고 데뷔했다.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빠른 스피드에서 나오는
그의 드리블은 팬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안양에서 2년 차 생활을 맞이한 홍창범은 남들과는 다른 책임감이 뒤따른다.
지난 시즌 아쉽게 이루지 못했던 승격의 꿈을 이뤄야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이번 시즌 선수단을 이끌어야 하는 부주장의 역할을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SUKHAVATI

지난 시즌 말미에 아픔을 겪은 안양이었지만, 홍창범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안양은 홍창범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팬들의 간절함이 담긴 그의 열정적인 모습은 이번 시즌에도 안양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Q. 재계약을 마음 먹게 된 계기가 있나요?

우선 재계약을 마음 먹게 된 계기는 구단에서 먼저 손을 뻗어준 이유가 있었어요. FC안양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갈피를 못 잡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준 구단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망설임 없이 재계약 제안을 받아들였고 재계약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또한 구단에서 이루고 싶은 점들도 남아있어서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Q. 선수단의 변화가 많았고 특히 중원 포지션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이번 시즌 감독님에게 특별하게 주문 받은 부분이나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훈련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이번 시즌 감독님께서는 중원에서 여유 있는 모습과 상대방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장면, 그리고 공격 찬스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감독님이 원하는 활약을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시즌 안양의 강점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시즌 안양의 강점은 두꺼운 스쿼드를 가진 선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오더라도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들이 있고, 이런 선수단을 바탕으로 좋은 전술이 만나서 안양만의 강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Q. 올해로 2년 차인데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작년에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경기장에서 헛구역질을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유나 안정감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일들은 없어졌고 조금은 성숙한 모습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Q. 주장단에서 홀로 나이가 어린 편입니다. 힘들거나 남모를 고충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부주장의 역할을 하면서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소통을 할 때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양은 나이를 떠나서 모두가 편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서로를 깨워주는 동료가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Q. 본인이 많이 도와주는 선수와 본인을 많이 챙겨주는 선수가 있으세요?

제가 많이 도와주는 선수는 같이 숙소 생활하고 있는 신인 선수들을 많이 챙겨주고 있어요. 반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선수는 주장단에 있는 (백)동규 형과 (김)경중이 형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Q. 마지막으로 팬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이번 시즌 FC안양은 승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많은 준비를 하며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찾아와주시는 팬분들과 멀리서도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많은 힘을 얻고 있고, 그런 팬분들 앞에서 항상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FC안양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C ANYANG MAGAZINE

반등의 시즌, 여름이 다가왔다

FC안양이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FC안양은 지난 5월 22일(일) 치른 리그 17라운드까지 리그에서 6승 6무 4패를 기록하며 리그 4위에 올라있다.
시즌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성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부천FC1995와의 원정 경기에서 0-2로 패배한 이후 치른 7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며 최근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은 상태.
경남과 광주, 대전과 부천 등 강팀을 차례대로 만나는 안양이다.
다가오는 6월, 안양은 2022 시즌 승격을 위한 시험대에 선다.

다소 아쉬웠던 2022시즌 안양의 봄

올 시즌 안양의 봄은 다소 아쉬웠다. 시즌 개막과 함께 2연승으로 리그 선두권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후 승점을 많이 쌓지 못하며 리그 4위까지 내려왔다.
시즌 초반 안양의 부진에는 조나탄, 백성동, 김형진, 이창용 등 주요 자원들의 부상 등으로 인한 이탈이 큰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조나탄과 백성동, 이정빈 등 공격 자원들이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던 이창용의 복귀 이후에도 실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창용은 지난 서울이랜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초반 퇴장을 당해 향후 2경기에서 출전이 불가능하다.
안양의 수장 이우형 감독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경기력의 아쉬움을 인정했다. 그는 "여러 조합을 써보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조합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듯하다"라며 "날카로운 공격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전에서 지나칠 정도로 만들어 가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 실수가 나온다. 과감하게 슛을 때리거나 솔로 플레이가 필요한데,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상대 지역에서 더 과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전과 반등의 계절, 여름

여름은 언제나 반전과 반등의 계기가 되는 계절이다. 여름 이후 경기력 향상을 보이는 외국인 선수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류하게 될 새로운 선수들, 기존 선수들의 조직력 향상과 분위기 향상 등 다양한 요건들이 K리그 팀들의 여름 반등을 이끌어줄 필요충분 요소가 되어왔다.
안양 역시 여름을 통해 반등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시즌 역시 6월에 좋은 성적을 거뒀던 안양이다. 안양은 지난해 5월 23일(일) 김천상무와의 경기부터 7월 10일(토) 김천상무전까지 8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며 4승 4무를 기록, 여름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당시 안양이 기록했던 8경기 무패 기록은 구단의 최다 기록과 타이 기록이다.
조나탄과 김경중, 아코스티, 백성동, 김륜도, 이정빈, 안드리고 등 수준 높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는 안양은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 개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선수들을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선수들도 많다. 특히 외국인 선수 조나탄의 경우 지난해에도 여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며 K리그2 득점 2위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더욱 기대할 만 하다.
반전과 반등의 계절, 안양의 여름이 이제 다가왔다.

안양과 함께 K리그1에 가야죠!

승격이라는 목표 하나로 FC안양과 재계약

FC안양 2022시즌
13 정민기 GK

키 190cm **체중** 78kg

"아마 올 시즌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골키퍼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지난 3월 16일 열린 부산 아이파크전에서 이우형 FC안양 감독이 정민기 선수의 활약에 극찬을 보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시즌에도 이 감독은 "향후 2~3년 후 한국의 대표선수가 될 것(지난해 10월, FC안양-서울이랜드 경기 직후 기자회견)"이라 강조하며 정 선수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 골키퍼로서 선방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고, 실제 경기에서 슈퍼 세이브를 많이 보여온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다. 그를 향한 팀의 기대감과 시즌을 거듭할수록 보여온 성장세, 그리고 팬들의 응원은 재계약으로 이어져 2022시즌에도 FC안양의 수문장을 맡게 됐다.

Q. 얼마 전 FC안양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소감을 부탁한다.

2018년 입단해 어느덧 안양에서 5년 차다. 감사하게도 팀은 물론이고, 팬분들께서도 재계약을 희망하고 응원해 주셔서 안양의 뒤를 지키게 됐다. 팀의 승격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저 역시도 간절히 원하는 만큼 오로지 승격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 안양과 재계약을 했다. 실점을 줄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Q. 그간 이우형 FC안양 감독이 공개된 자리에서 정민기 선수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내비쳐왔다. 부담되지는 않았나.

일단 믿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크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좌우 사이드에서 날아오는 공중볼 처리에 약점이 있고, 빌드업에 약한 편이다. 승부차기에서의 담대함도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고자 현대축구에 걸맞은 빌드업 연습이나 롱 킥 연습 등에 더 힘쓰는 중이다.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의 여지도 크다는 의미라 생각되어 약점은 메우고, 장점은 더욱 키워 팀에 더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Q. 정 선수의 가파른 성장세는 지난 시즌부터 안양 주전 골키퍼 자리까지 꿰찼게 했다. 개인적으로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3경기를 제외하고 34경기에 출전했다. 4년 차에 풀 시즌을 경험할 수 있어 경기력 향상에 굉장한 도움이 됐다. 매 경기 마치고 스스로 점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다.

Q. 매주 경기를 준비하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관리했나?

일단 경기나 운동이 끝난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잠을 취하고자 했다. 또, 경기 결과를 쉽게 떨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스타일이라 의도적으로 더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Q. 고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축구를 했으니 사실 시작이 빠른 편은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축구라 늘 삶 가까이에 있었지만, 형이 현대고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해 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하며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제대로 시작해 미친 듯이 몰입했다. 형 때문에 축구를 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출발이 늦은 만큼 기존 선수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성실함과 노력만이 답이었다. 주말에 외박을 받고 집에 가도 형, 아버지와 함께 운동했다. 대학 시절에도 방학 땐 집에 와 보충 훈련을 했다. 프로 입단 전까지는 아버지께서 짜주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역량을 키우는 데 힘썼다. 환경 측면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컸다.

Q. 조현우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특히 어떤 부분을 닮고 싶은가?

모든 부분을 배우고 참고하고 있다. 저와 체형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과 조현우 선수가 잘하시는 부분이 닮아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로 조현우 선수 영상을 많이 본다. 경기 시작 전에도 조현우 선수 영상을 보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 됐다. 경기 결과가 나오면 이 상황에서 과연 조현우 선수는 어떻게 대처했을지 대입해 분석해 보기도 한다. 형의 주선으로 조현우 선수와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실력면에서도, 생활면에서도 보고 배울 점이 참 많은 선수였다. 이후 고민이나 막히는 부분을 여쭤보면, 힘이 되는 얘기도 건네주시고, 참고할 만한 좋은 영상도 공유해주신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보내주셔서 감동이었다.

Q. 혹시 최근 치른 경기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

지난 4월 광주FC와 치른 경기에서 전반 27분 엄지성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앞에서 우리 수비수 세 명의 견제를 피하고자 볼을 살짝 뒤로 끌면서 공간을 만든 후 오른발 중거리 감아차기 슛을 때렸다. 힘이 묵직하게 실린 데다가 궤적도 예리해 손을 쓰지 못했다. '저렇게도 골이 올 수 있구나' 싶었고, 제가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Q. 팬서비스가 좋다. 팬들에게 한 마디 남겨달라.

돌아보면 저도 고3때 청소년 대표팀에 가서 당시 23세 이하 대표팀에 있던 조현우 선배를 만나 페이스북으로 '선배님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답장받았다. 그런 메시지가 결국 팬에게는 기쁨이자 힘이 됨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저희를 바라보며 함께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없다면 선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필드 위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 경기를 마치고서도 인사나 악수로 보답할 수 있는 부분에 성의껏 임하려 한다. 아마 그런 부분을 인상적으로 봐주신 게 아닐까 싶다. 다시 경기장에서 팬분들의 함성을 들을 수 있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PO권 이상 달성해서 승격하는 것이 구단, 관계자, 스태프, 선수 모두의 목표인 만큼 지금의 성적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믿고 FC안양의 성과를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Q. 그리하여 이제는 삼부자가 각각 K리그에서 지도자, 프런트, 선수로 일하고 있다. 각자 자기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가족의 팀도 응원하는 묘한 관계 같은데, 그래도 서로의 존재 자체가 큰 힘이 될 것 같다.

(정민기 선수 아버지인 정성진 코치는 1998년 프랑스월드컵 대표팀 골키퍼 코치이자 현재 김포FC 골키퍼 코치로 활동 중이다. 선수 시절 울산 현대에서 골키퍼로 활동했다. 형은 2020년 울산 구단에 입단해 유소년 매니저로 근무 중이다.)

아버지께서 특별한 말씀은 없으시지만. 평소 저를 지켜보며 지지해주고 계심을 느낀다. 최근에는 아주 조금 저를 인정해주시는 듯도 하다(웃음). 골키퍼 지도자를 오래 하신 아버지가 계셨기에 축구를 할 수 있었던 만큼, 아버지는 제 인생의 뿌리다. 그리고 형은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도 '너는 무조건 국가대표가 될 것'이라며 무한한 용기를 불어넣어 줬다.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면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스승이자 고마운 멘토다.

Q. 그렇다면 FC안양과 김포FC와 맞붙었을 때 어머님께서는 어느 팀을 응원하실 것 같나.

그 부분은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다. 선수인 내가 있는 FC안양이다(웃음). 5월 14일 경기에도 어머니께서 친구분들과 함께 오셔서 응원하신다고 하셨다.

Q. 그나저나 요즘 아이 패치를 장착하고 뛰고 있다. 당분간 정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보면 되나.

햇빛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보다는 저만의 특징을 갖고, 조금 더 팬들에게 어필하고 싶어 붙이게 됐다. 사비로 구매했던 건데 최근 한 아이 패치 업체에서 후원도 해주시어 당분간 열심히 붙일 생각이다(웃음). 또, 구단과도 얘기해봐야 하지만, 팬분께서 원하신다면 이벤트를 열어 직접 붙여드리는 팬 서비스도 계획해 봤다.

Q. 쉴 때는 주로 무엇을 하나?

영화를 좋아해서 유튜브로 영화 리뷰를 많이 본다. 드라이브도 즐긴다.

Q. 현재 K리그2 선두 경쟁이 몹시 치열하다. 올 시즌 최대 3팀이 2023시즌 K리그1로 승격할 수 있다. 아무래도 지난해 아쉬움이 커 올해 승격 의지가 더 활활 타오를 것 같은데.

작년 리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플레이오프에서 대전에 패하며 너무나 아쉬웠다. 이번 시즌은 다이렉트로 승격하고 싶어 더 착실히 준비했고 모두가 목표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다. 매 시즌이 도전이고 모험이지만 올 시즌은 더더욱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고 본다. 구단과 선수들, 감독님, 코칭 스태프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팬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축구를 통해 꼭 승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Q. 팀 목표는 승격이고, 선수로서 목표는 무엇인가?

처음 축구를 했을 때부터 국가대표를 꿈꿨다. 사실 재계약을 앞두고 K리그1에서 오퍼도 있었지만, FC안양이 승격하여 함께 K리그1로 가게 되면, 국가대표의 꿈에도 한 발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점을 조금씩 보완하여 안양이라는 팀이 더 강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선수로, 그리고 팬들에게는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선수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싶다.

Q. 국가대표로 선발돼 조현우 선수와 함께하는 모습도 상상해 봤겠다.

맞다. 그런데 함께 경기를 치리는 장면보다는, 훈련이나 개인 정비와 같이 직접 볼 수 없었던 선수의 뒷모습을 실제로 보고 싶어 그 순간을 꿈꾼다(웃음).

2022 시즌 NEW GOODS

오프라인 구매
FC안양 상품 판매소

온라인 구매
FC안양 온라인 스토어

니트 머플러 30,000원

데스크 패드 22,000원

마스크 3,000원

마스크 스트랩 3,000원

문구세트 15,000원

사인볼 10,000원

스티커 6,000원

엠블럼 뱃지 7,000원

원정 유니폼 상의 80,000원

유니폼 열쇠고리 8,000원

주장 완장 15,000원

주차 알림판 6,500원

캐릭터 뱃지(나리) 6,500원

캐릭터 뱃지(바티) 6,500원

캐릭터 뱃지(나리) 6,500원

홈 유니폼 상의 80,500원

FC안양 응원가

너와 나의 안양

너와 나의 안양
평생 우리 함께 해
나를 살아있게 해
우릴 움직이게 해

YOU GO WE GO
평생 우리 함께 해
나를 살아있게 해
너와 나의 안양

GLORY

오직 우리에겐 승리 뿐
뛰어 힘차게 정상을 향하여
외쳐 승리를 위한 함성
안양의 영광을 위해!

바보같은 녀석들

박차고 일어나 다함께 외쳐라 승리의 날이 왔다
우리의 함성이 저 높은 하늘을 찢어버릴 때까지
You can be the Champion
Dream on on Forever
안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보같은 녀석들

SUKHAVATI

FC안양 유소년 아카데미 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2년 2월 14일(월) 오전 10시부터 상시 모집

[교육일시] 평일반(화~금) / 주말반(토)

[교육장소] 비산체육공원 / 안양종합운동장 / 친목마을

[교육대상] 6~13세(안양시 거주자)

[교육비] 월 4회 기준 5만원

[패키지] 2022년 FC안양 유니폼(80,000원)

[차량운행] 8~13세만 가능(6~7세 불가능)
동선이 어려운 지역은 운행 불가(사전 협의)

[기타] 단체반(8명 이상) 가입 시 추가 혜택 제공
단체반은 평일반(화~금)만 가입 가능

[신청 방법]
1.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FC안양' 채널 친구 추가
2. 'FC안양 유소년 아카데미' 선택
3. 내용 확인 후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링크는 2월 14일(월) 오전 10시에 생성되며, 그 이후에 제출 가능
   ※ 2021년 기존 회원 및 대기자들이 많아 조기마감 된 반이 있습니다

[문의] FC안양 유소년 아카데미(031-476-5566)

FOOTBALL CLUB ANYANG

STAFF

감독 이우형 **수석코치** 유병훈 **코치** 김연건 **GK코치** 최익형 **피지컬코치** 김성현 **의무팀장** 서준석 **재활트레이너** 황희석

재활트레이너 신영재 **통역팀매니저** 노상래 **전력분석관** 이재철 **장비관리사** 주종환 **실장** 조해원 **스카우트팀장** 송상일 **스카우터** 주현재

PLAYER

01 김태훈 GK **02** 정준연 DF **03** 최승훈 DF **04** 이창용 DF **05** 유종현 DF **06** 임승겸 MF **07** 백성동 MF

08 안드리고 MF **09** 조나탄 FW **10** 아코스티 FW **11** 김경중 FW **13** 정민기 GK **14** 홍창범 MF **15** 김형진 DF

16 박재용 FW **17** 양정운 FW **18** 유종우 FW **19** 김주환 DF **20** 이상용 DF **21** 박성수 GK **22** 김동진 DF

23 이재용 FW **25** 박종현 DF **28** 김륜도 FW **29** 정현욱 FW **30** 백동규 DF CAPTAIN **32** 심동운 FW **40** 연제민 DF

45 홍현호 FW **55** 박경빈 DF **66** 황기욱 DF **77** 전보민 DF **83** 윤준성 DF **88** 이정빈 MF **99** 주현우 MF

2022 K리그2 FC안양 홈 경기일정표

Round	일 자	시 간	Away
1	2.19 (토)	16:00	VS 전남드래곤즈
2	2.27 (일)	13:30	VS 충남아산FC
3	3.06 (일)	13:30	VS 경남FC
5	3.16 (수)	19:30	VS 부산아이파크
8	4.02 (토)	16:00	VS 김포FC
11	4.18 (월)	19:00	VS 광주FC
14	5.07 (토)	13:30	VS 안산그리너스
17	5.22 (일)	18:30	VS 서울이랜드
18	5.28 (토)	18:30	VS 경남FC
21	6.18(토)	18:00	VS 대전하나시티즌
23	6.25 (토)	20:00	VS 서울이랜드
25	7.06 (수)	19:30	VS 충남아산FC
28	7.24 (일)	20:00	VS 대전하나시티즌
30	7.31 (일)	19:30	VS 부산아이파크
33	8.16 (화)	19:00	VS 부천FC1995
35	8.27 (토)	18:30	VS 김포FC
37	9.05 (월)	19:30	VS 전남드래곤즈
39	9.14 (수)	19:30	VS 광주FC
42	10.01 (토)	18:30	VS 안산그리너스
43	10.08 (토)	13:30	VS 부천FC1995

※ 각 구단사정과 기상상황으로 인해 일부 변경 가능

발행일 2022년 5월 28일 **발행인** 장철혁 **발행처**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안양종합운동장
전화 031-476-3377 **홈페이지** www.fc-anyang.com **편집장** 문병헌 **디자인** 매드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본 매거진은 국민체육 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NEXT STEP
FC ANYANG
FC안양
ANYANG
SUPPORTERS UNION RED
ANYANG
Civitano
Paradizo
Felico
FOOTBALL CLUB
ANYANG
ANYANG
OUR CITY, OUR CLUB
언제나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성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